현대百, 연탄나눔 봉사로 기해년 새해 맞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임직원 및 고객봉사단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찾아 봉사활동

현대백화점그룹이 2019년 기해년을 나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2019년 그룹 합동 시무식'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백화점그룹은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연탄 총 25만장(약 2억원)을 전달했고, 이중 연탄 4500장은 정지선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임직원과 고객 봉사단 등 200여 명이 30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올해 봉사활동에는 가수 지누션의 '션'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션은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 측에 기해년 첫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달된 25만장은 백사마을에서 연탄 난방을 하는 420여 가구에 약 600장씩 나눠줄 수 있는 물량이다. 겨울철 한 가구가 월 평균 200장의 연탄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백사마을에서 연탄 난방을 하는 가구가 오는 3월까지 연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수준이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연탄은행에 기부한 연탄만 총 172만장(약 13억원)에 달한다.

허기복 밥상공동체복지재단 대표는 "최근 연탄 가격이 장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 오르고 기업들의 후원금도 약 40% 가량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현대백화점그룹이 매년 연탄을 지원해 줘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CSR)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란 그룹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투표율 '이변' 필요한 변협

기자 수첩

이 범 종 〈정책사회부〉

들뜬 새해 인사 뒤에 고개를 들면 눈앞에 과제가 서 있다. 기본권 수호의 최전선인 법조계 역시 못다한 숙제들이 눈처럼 쌓였다. 검찰과 법원은 해를 넘겨 이어지는 '사법농단' 수사와 재판에 묶여있다. 지난해 '#미투'의 정점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법원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보호와 직역수호 과제를 안은 변호사도 고민이 깊다. 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투표는 각각 이달 23일과 28일 열린다. 서울변회장은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이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찬희 전 서울변회장이 단독 출마한 대한변협 선거다. 회칙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당선되려면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초유의 사태를 좋게 해석하면 이 회장에게 적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서초동에서 만난 변호사는 "이 회장에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특성상 유권자들이 투표에 무관심해 재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과거 변호사 투표율을 높이려는 방책으로 마련된 기념품 가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변호사가 기념품 때문에 투표하겠느냐"며 낮은 투표율을 내다봤다.

현직인 김현 변협 회장은 2017년 선거 당시 유권자 1만8528명 중 6917표(59.22%)를 얻어 당선됐다. 유효 투표수는 1만160표였다. 전임 하창우 회장은 유효투표수 8989표 중 3216표(35.77%)를 받았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결선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하는 구조에선 2명 이상이 출마해야 유리한 구조다.

대한변협회장은 법조삼륜의 한 축이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동등한 법조윤리협의회 구성권을 가진다.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들의 임명에 관여할 수도 있다.

높은 투표·득표율로 출범한 집행부는 그만큼의 정당성과 목소리를 갖게 된다. 특정 직업의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자리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이면 전국 변호사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다음날이면 이 결과에 대한 국민의 판단 역시 이어질 것이다.

/joker@metroseoul.co.kr

태광산업 '2018년 올해의 태광인' 시상식 개최

프로필렌 생산팀 선정… 포상금 수여

태광산업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동호로 본사에서 일년 동안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및 공적을 쌓은 부서를 포상하는 '2018년 올해의 태광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의 태광인은 임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연말에 운영하는 제도로, 2016년에 시작해 이번이 3회째다. 태광산업 임직원이라면 팀 또는 개인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태광산업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차 전형으로 추천서 내용 심사를 진행했으며 2차로 후보자 공적발표회를 열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종합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홍현민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의 태광인상은 생산공정을 개선해 원가절감에 성공한 프로필렌 생산팀이 선정돼 상장과 함께 포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지난달 28일 태광산업 본사에서 열린 '올해의 태광인' 시상식에서 홍현민 대표이사(첫줄 왼쪽 네번째) 및 임직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태광산업

오늘의 운세 1월 3일 (음 11월 28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이 침이 마른다. 60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72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마음껏 역량을 발휘. 84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소 4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행동을 조심. 61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7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85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호랑이 50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62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74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86년생 시험 시에는 파란색 스카프를 둘러보라.

토끼 51년생 자신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함구하라. 63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뛸 듯이 기쁘다. 75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 87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용 52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64년생 큰 둑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걸 명심. 76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88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뱀 53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줘서라도 달래야 한다. 65년생 진실을 알아도 침묵해야 만사가 편하다. 77년생 파란 하늘이 그립고 비빌 언덕이 절실하다. 89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말 54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6년생 지나친 관심은 나도 상대도 지치게 한다는 걸 명심. 78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90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당한다.

양 55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흘이다. 67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79년생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91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니 협조.

원숭이 56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그리움이다. 68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80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92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니 좋은 하루.

닭 57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9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81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두문불출. 93년생 망설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과감히 도전해 보자.

개 58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70년생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물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라. 8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94년생 상사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포장을 잘 해야 한다.

돼지 59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71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기본. 8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95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6			9	
1		2				7		3
7								4
		8	3		6	2		
	4			5			3	
	6						7	
		9				8		
8			1		5			6
	2			4			1	

	1	2						
3			1					
7			3			6	8	
	5	6	4		9			7
		4			5			3
	7					5	2	4
6							7	
		7	9			3		
		1	6		8			

스도쿠 정답

9	1	3	7	4	8	5	2	6
6	2	4	5	9	1	3	7	8
7	5	8	2	3	6	9	1	4
5	7	9	8	2	4	1	6	3
4	8	5	9	1	2	6	3	7
1	3	2	4	6	7	8	9	5
8	6	1	3	5	9	4	2	7
2	9	7	6	8	3	1	4	5
3	4	6	1	7	5	2	8	9

5	8	4	7	6	3	1	9	2
1	9	2	5	8	4	7	6	3
7	3	6	2	1	9	5	8	4
9	5	8	3	7	6	2	4	1
2	4	7	9	5	1	6	3	8
3	6	1	4	2	8	9	7	5
4	1	9	6	3	2	8	5	7
8	7	3	1	9	5	4	2	6
6	2	5	8	4	7	3	1	9

5	3	1	6	7	8	4	9	2
8	2	7	9	1	4	3	5	6
6	4	9	2	5	3	1	7	8
9	7	3	8	6	1	5	2	4
1	8	4	7	2	5	9	6	3
2	5	6	4	3	9	8	1	7
7	9	5	3	4	2	6	8	1
3	6	8	1	9	7	2	4	5
4	1	2	5	8	6	7	3	9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 四季

운세가 흐르는 길목 지키기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들은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인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돈을 버는 것과 운세를 버는 건 한편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느낀다. 좋은 운세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려면 운세가 흐르는 길목을 지켜야 한다. 운세의 길목을 지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경제가 안 좋은 요즘, 세대를 가리지 않는 창업에서 그 사례를 보자. 창업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개업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본다. 위험한 일이다. 자산을 날릴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지나친 용기를 부린다. 살아가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때가 중요하다. 창업은 특히나 운세의 때가 많은 걸 좌우한다. 두 사람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한 사람은 창업 전에 상담을 청했고 다른 한 사람은 창업 후에 상담을 왔다. 창업 전 상담을 온 사람은 가게를 열고나서 그 이후의 운영이 걱정돼서 찾아왔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겠다는 것이다. 창업 후에 상담을 온 사람은 덜컥 창업을 한 뒤에 위기가 몰려오자 상담을 청했다. 두 사람이 던진 질문은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질문이지만 때가 달랐고 그로 인해 많은 게 달라졌다. 창업 전에 온 사람은 운세가 열리는 시기가 아님을 알게 됐다. 몇 달을 더 준비한 뒤에 창업을 했고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창업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미 운세가 기울고 있었다. 금전 손실이 막대했지만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운세가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모든 일은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다. 일을 도모할 때는 자기 운세가 열리는 때를 찾아 기다려야 한다. 운세가 지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잡아채야 하는 것이다. 운세도 흐르는 시기가 있고 흘러가는 길목이 있다. 시기를 잘 맞춰서 운세의 흐름을 낚아채면 재물이 더 들어온다. 일의 추진에도 막힘이 없다. 살아가는데 용기만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16호